

◇인공판막치환술을 받은 임신부에서 항응고료법

최순호, 고광표, 한재오, 양현웅, 최종범

원광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_혈전경색등의 높은 빈도 때문에 인공판막치환술환자에서는 쿠마딘으로 영구적인 항응고료법을 요한다.이들 환자에서 임신시 쿠마딘의 지속적인 투여가 태아사망, 신생아 기형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인공판막치환술을 받은 가임기 환자에서는 임신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도록 하지만 불가피했던 환자에서 가장 좋은 치료방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 _인공판막치환술을 받고 임신을 했던 9명의 15례 임신에서 임신 3개월까지는 헤파린 50000units를 12시간 간격으로 피하주사를 하였고 임신 4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쿠마딘을 복용하도록 해서 PT가 1.5-2배의 INR이 되도록했고 임신 10개월째부터 출산 12시간전 또는 진통이 시작될 때까지는 헤파린을 피하주사 하면서 분만을 유도해 산모와 태아에대한 항응고료법의 방법을 분석하였다.

결과 : _임신기간 및 임신후반에 산모에대한 합병증은 없었으나 3건의 유산이 있었으나 태어난 신생아에서는 1례의 조산이외의 선천성기형은 없었다.

결론 : _인공판막치환술을 받은 임신부에서 임신2-3기 동안의 항응고제인 쿠마딘투여는 3건의 유산을 야기했지만 혈전,응고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예방방법이었고 임신초기와 임신초기와 말기에 저용량의 헤파린 투여는 산모나 태아에대한 합병증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책임저자:최순호(원광대병원 흉부외과) 발표자:최순호(원광대병원 흉부외과)